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비대면 시무식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4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부안군의회 신축년(辛丑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방역지침 준수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개최된 이번 온라인 시무식은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산병원, 응급의료 수가 인상

정읍 아산병원의 응급의료 수가가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1년부터 인상된다.

평가지표는 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중증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 기관등급 1등급, 전담 전문의 인력 1등급, 간호 5등급으로 나왔다.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가 신규 수가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아산병원 응급의료 본인부담금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등급에 따라 1~3등급 응급환자는 1만790원, 1~3등급 비응급 환자는 1만5,080원으로 인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푸드마켓' 1호점 개장

정읍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1호점이 들어섰다.

시는 저소득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한 '잘 좋은 푸드마켓'이 4일 연지동 유림정례식장 맞은편(면적 55, 연지동)에 4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푸드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필수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랑의 장터다. 생산·유통·판매·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과 생필품 등을 대상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힘찬 한 해 출발

시무식서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신념으로 정읍 발전 위해 약진 다짐

정읍시가 2020년 경자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과 2021년 신축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종무식과 시무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비대면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종무식은 유진섭 시장의 송년사를 청 내 방송을 통해 송출했고 '직원 간 연하장 보내기'를 통해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선후배와 동료 직원에게 감사 인사와 덕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신축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4일 진행된 시무식은 간부 공무원의 총합담 참여와 유 시장의 신년사 영상 송출, 신축년 사자성어인 '유지경성(有志竟成)' 풀이, 부서별 새해 다짐을 담은 영상 상영 순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유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발전 추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 ▲유수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농업 기반 확충 및 신산업 개발로 농



정읍시가 2020년 경자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과 2021년 신축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해의 출발을 알렸다.

업의 미래 선도 ▲도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등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인향(人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 정향(井香)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여 정읍의 향기를 온누리에 알리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2021년 새해 첫날을 시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

고 상생과 통합 의미를 강조하는 행보로 시작했다. 신축년 새해 첫날 유 시장은 이른 새벽 대한여객 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운전기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새해 첫 여행을 준비하는 운전기사들을 격려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등 이용 시민뿐 아니라 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총력

비대면 시무식 업무 시작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율력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4일 고창군은 오전 10시 전직원이 사무실 등에서 유기상 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의 신년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진행했다.

유기상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 되어 농생명식품수도·역사문화관광수도를 꿈꾸며 서로 손잡고 울려퍼지며 주춧돌을 놓은 한 해였다"며 "2021년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정 철화 사자성어는 지난해에 이은 '평이근민(平易近民)'으로 정해졌다. 모양성안 동현의 현판도 '평근당(平近堂)'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려퍼



4일 고창군은 오전 10시 전직원이 사무실 등에서 유기상 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의 신년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진행했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군수는 새해 신년사에서 군민 체감도 향상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농생명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의 부가가치 향상

▲친란한 역사문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지식농사 잘 짓고, 사람 잘 키우는 고창위한 율력 ▲나눔과 봉사로 춤춘한 복지도시, 손잡고 함께하기 등의 계획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산균 발효김 특허 획득 주목

농업회사법인 SP 한승용 대표, 건강한 먹거리 생산 향산화 효과 향상, 기능성·저장성 및 기호도 개선

부안군 행안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SP 한승용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능성 먹거리를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승용 대표가 발명한 기술은 발효 김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지난해 12월 17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서를 받았다. 이번 기술은 유산균을 활용해 김 원초를 발효시켜 김을 제조함으로써 김의 향산화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능성·저장성 및 기호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발효김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밥반찬으로 즐겨먹는 김은 김 원초를 이용해 제조되는데 김 원초는 '해태(海苔)'라고도 하며 바다의 암초에 이끼처럼 붙어서 자란다.

김 원초는 길이 14~25cm, 너비 5~12cm이고 몸은 긴 타원 모양 또는 줄처럼 생긴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으며 몸 윗부분은 붉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파란빛을 띤 녹색이다.

김 원초는 해조류 중에서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D 풍부한 식품이다. 특히 비타민B12는 뇌신경 영양 물질로 야채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건조 김 3배 섭취로 1일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

또 김 원초는 인지질이나 콜린의 함



한승용 대표

량에 있어서도 타 식용 해조류보다 훨씬 높으며 미역과 비교했을 때 김 원초에는 약 3배 이상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승용 대표는 유산균을 활용해 김 원초를 발효시켜 김을 제조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이는 천연미생물로 가금류 면역력 증강 제품, 축산농가용 약취제거살포제 등을 개발해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SP 한승용 대표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특허기술의 핵심인 유산균은 글루코코스 등 당류를 분해해 젖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을 말하며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잘 공존·공생하는 특징이 있다.

유산균 혼합물은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르,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가케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중 2종 이상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유산균은 면역강화와 유해균 억제, 장내 적절한 미생물 균형 유지, 항암효과, 정장작용 및 소화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승용 대표는 "이번 특허기술은 유산균을 활용해 김 원초를 발효해 발효 김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며 "품질이 우수한 부안의 김 원초를 이번 기술로 가공·판매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하고 안전한 기능성 먹거리로 양미로 건조 김 3배 섭취로 1일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

또 김 원초는 인지질이나 콜린의 함

/부안=김석진 기자

호흡기 환자 초기진료 시스템 마련

정읍,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해 의료가관에서의 진료가 지연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시는 호흡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 클리닉' 시스템을 구축하고 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민원대기실과 접수실, 비대면 진료실, 검체 채

취실 등의 시설이 설치됐다.

진료공간에는 음압 시스템과 병·난방기, 해파 필터를 장착한 공기정정기 등 장비도 구축됐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는 기침과 인후통,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구분해 진료하고 처방전을 직접 발급한다. 또,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인계해 별도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상담과 예약은 전화 ☎ 063975397(798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